



2025년 3호
2025.09.22.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장창열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죽어가는 지구, 살리는 노동 노동자의 미래는 기후정의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 "기후재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극강의 폭염으로 야외작업 노동자가 죽고, 태풍·강풍으로 포항 제철소가 침수되기도 했다. 가뭄·물부족으로 인해 강릉시는 제한 급수를 실시했다. 의성발 산불로 인해 삶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이런 기후재난은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 금속노동자에게도 기후변화는 일자리 불안정, 폭염 속 작업 사망, 원자재 공급망 차질 등 고용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이 가져온 재앙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지구를 망치면서 이윤을 얻어온 것이다. 제조산업이 발달한 한국도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상위권에 속한다.

즉, 기후위기는 끝없이 팽창하기만 한 자본주의가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기후재난은 불평등하다

전 세계 인구의 소득불평등은 탄소배출로 인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들은 52%의 부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가 가진 것을 전부 합해도 단 8%에 그치고 있다.

그에 비해 상위10% 부자들은 전 세계 탄소배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돈을 많이 버는 상위10% 부자들이 기후재난의 주범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에 비해 기후재난의 직격탄은 하위층이 맞는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 기상이변으로 발생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이 개발도상국에서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적 손실 규모 역시 개발도상국이 훨씬 컸다. 돈은 상위 10%가 벌고, 피해는 고스란히 전가된다. 죄는 남이 짓고, 벌은 내가 받는 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지구에서는 일자리도 없다 (No Jobs on a Dead Planet)

“노동자들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는 금속노조가 외쳐온 정의로운 전환을 관통하는 표어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것이 일자리를 없애서 오늘 죽음을 가속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녹색일 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소를 발생시키지만 그것이 노동자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다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기후재앙이 노동자 일자리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에 전세계 노동조합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요구하고 투쟁한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부와 기업도 '녹색 일자리'를 말한다. 그러나 자본의 손에 맡겨두면 자본은 탄소를 핑계로 구조조정 기회로 삼거나 또 다른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산업전환이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각단위 교섭으로 “산업전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산업전환 협약은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신기술도입관련 직무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등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고 나아가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함께 나선다는 내용이다.

2025 기후정의 실천단 9.27 광장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한 기후정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후정의운동 단체들과 함께 자동차공장, 재벌기업현장, 반도체 공단 등을 방문하는 실천단을 꾸렸다. 실천단은 9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전국을 돌며 노동자,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마무리 활동으로 9월 27일(토) 오후3시 서울 동십자각에서 927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익 중심의 경제성장 국정방향에 제동을 걸고, 생명과 평등을 외치는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927 기후정의 행진 6대요구안

-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

하나뿐인 지구를 단지 이윤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이윤만을 생각해 온 물질만능 자본주의 사회를 조금씩 바꿔보자. 물건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지구는 고쳐쓰기가 어렵다.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으로 이익 추구를 위해 폐허가 된 세계가 아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남겨보자.

927기후정의행진 참여단체와 추진으로 함께해주세요



조직위
참여단체
가입하기



추진이
가입하기

△광장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할 수 있다. 개별위원(추진이) 가입에 함께하자